

라파즈社, 중국에 합작회사 설립 생산능력 1,470만톤으로 확대

라파즈사는 8월 11일, 중국 서남부에 거점을 둔瑞安(SHUI ON)그룹과 합작회사를 설립한다고 발표했다.

합병회사인 「라파즈瑞安시멘트」에는 라파즈사가 55%, 서안건설자재(瑞安建設資材, SO-CAM)가 45%를 출자하였다.

동사의 시멘트 생산능력은 양사의 기존 공장과 현재 인수를 진행시키고 있는 공장을 포함하여 2005년말에 1,740만톤에 이르게 된다. 라파즈사는 프랑스에 본사를 둔 세계 1위의 시멘트 메이커로 중국에서는 북경에 2개 공장, 사천성과 중경시에 각각 1개의 공장을 소유하고 있다.

이러한 4개 공장의 생산능력(크링가 기준)은 355만톤이지만 사천성과 중경시 소재 공장은 이미 증설이 진행중에 있어 2005년말에는 620만톤이 될 전망이다.

한편, 서안건설자재(瑞安建設資材)는 중경, 사천성, 귀주 등에 시멘트 공장을 가지고 있으며 이외에 운남성에 몇개의 공장매수를 진행하여 중국 정부의 인가를 기다리는 단계에 있다고 한다.

이를 모두 포함하여 합작회사의 시멘트 생산능력은 1,740만톤이 된다. 동사는 사천, 귀주, 운남 3성을 중심으로 하는 서남지역의 최정상 메이커가 될과 아울러 중국 전역에서는 1위인 Anhui Conch 집단(2004년 생산량 5,500만톤) 등에 이어 3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동사의 거점이 되는 중국 서남부는 연해부에 비해 경제발전이 늦어지고 있지만 중국 정부는 지역 격차의 시정을 목표로 「서부대개발」 정책을 진행시키고 있어 시멘트 수요도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금후도 발전이 전망되고 있기 때문에 더욱 사업확대를 도모할 방침이다.

(2005. 8. 29 일본시멘트신문)

대만 아시아시멘트社, 신규 공장 추진

대만의 2위 시멘트업체인 아시아시멘트社가 중국 본토에 있는 우한(武漢, Wuhan)에 16억위안을 투자하여 두번째인 후베이 야동(Hubei Yadong)시멘트 공장의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 300만톤의 생산능력을 계획하고 있는 신설공장은 2단계에 걸쳐 건설될 예정으로 1단계는 2006년 10월에 완료될 것이다. 우한에서 준공되는 아시아시멘트사의 첫번째 공장인 우한야동시멘트 공장은 지난 2004년에 150만톤의 시멘트를 생산했으며 시장점유율 20%를 나타내고 있다. 우한야동은 지난해 440억위안의 매출을 달성하였다.

(International Cement Review 7월호)

시멕스社, RMC 합병 특수 누려

멕시코의 시멕스社의 상반기 매출액은 RMC社의 합병후 첫 4개월간의 매출 신장에 힘입어 85.2% 증가한 69억 4,760만달러(이하 미화기준)를 기록하였다. 상대적으로 EBITDA(법인세, 이자, 감가상각비 차감전 이익)는 36.2% 증가한 16억 1,920만달러에 그쳤는데 이는 RMC社의 일부 영업부문의 실적 저조와 남미와 카리브해 연안에서의 실적 하락에 따른 것이다.

수출부문 이익은 38.1% 증가한 11억 8,930만달러이며 이자비용 차감후 이익은 47.3% 증가한 2억 4,200만달러를 기록하였다. 세전 영업이익은 36% 증가한 9억 4,740만달러를 시현하였다. RMC사의 합병과 미국내 2개 공장의 매각으로 6월말까지 순부채는 93.7% 증가한 96억 2,400만달러이며 자기 자본비율은 102.5%이다. 상반기 자본적 지출은 89.9% 증가한 2억 4,200만달러를 기록하였다. 시멘트 수출은 17.8% 증가한 3,825만톤의 실적을 올렸으며 동기간 레미콘 출하는 무려 162.9%가 증가한 3,068만m³를 기록하였다.

멕시코내 상반기 시멘트 출하는 2/4분기에 5%의

증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3%의 가격 하락(페소화 기준)으로 대략 2% 정도 감소하였다.

반면에 레미콘과 골재 판매량은 각각 15%, 4% 증가하였다. 수요는 주택건설과 사회간접자본 부문 용도로 꾸준한 추세를 나타냈다.

미국에서의 매출은 처음으로 멕시코의 실적을 능가하는, 지난해에 비해 거의 두배에 가까운 18억 78만달러를 시현하였다. 시멘트 수출은 7%의 매출신장을 바탕으로 전년대비 6% 증가하였고 평균가격은 18% 가량 인상되었다.

중남미와 카리브해 연안에서는 14%의 내수증가에 힘입어 11.9% 증가한 6억 3,390만달러의 매출을 기록하였으나 2/4분기에 30.1%나 감소한 EBITDA는 상황악화로 결국 24.1% 감소한 1억 8,040만달러를 기록하였다. 평균가격은 연료비 상승에도 불구하고 9%나 하락하였다.

중요한 시장인 유럽에서는 상반기에 25억 3,670만달러의 매출과 4억 4,380만달러의 EBITDA를 기록하였다. 최대 시멘트 생산업체인 스페인 내에서는 9%의 가격인상에 힘입어 24.8% 증가한 7억 6,140만달러의 매출 신장과 20.6% 증가한 2억 2,980만달러의 EBITDA를 기록하였다. 스페인에서 시멘트와 콘크리트 가격은 지난 6개월 동안 5%가 인상되었다. 영국에서는 시멘트와 레미콘 가격이 각각 9%, 7%(달러기준) 인상된데 힘입어 2억 3,940만달러의 매출액과 7,450만달러의 EBITDA를 기록하였다. 독일에서는 평균가격이 31% 인상되었지만 동기간 레미콘 출하가 17%나 감소하여 수출은 18%나 감소하였다.

아프리카와 중동에서의 매출은 160.4% 증가한 2억 3,360만달러를 기록하였으며 EBITDA는 62.7% 증가한 6,770만달러를 시현하였다.

이집트로 선적되는 시멘트 수출은 13% 증가하였으며 가격 역시 22%나 인상되었다.(미달러화 기준) 이집트에서의 시멘트수요 회복세는 사회간접자본시설 사용과 민간주택 건설 등에 기인하고 있다.

(International Cement Review 8월호)

베트남, 수요증가 예상

베트남 건설부 장관은 올해 남은 기간 시멘트수요가 10% 증가한 1,500만톤이 더 필요할 것이며 올해 총수요는 2,900만톤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현재 국내 시장점유율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베트남시멘트社의 올 하반기 시멘트와 크링카의 생산 및 판매계획은 650만톤이며 3/4분기에는 300만톤 가량 될 것이라고 밝혔다. 동사는 또한 연말과 내년초의 시멘트 생산을 위해 남은 기간 100~105만톤 정도의 크링카를 수입할 계획이며 3/4분기 수입은 45만톤을 계획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상반기 베트남의 시멘트 생산실적은 1,374만톤이며 크링카 수입은 190만톤을 기록했다. 베트남시멘트社는 650만톤의 시멘트와 420만톤을 상회하는 크링카를 생산하였으며 642만톤을 판매하였다. 같은 기간 27.6%의 시장점유율을 갖고 있는 시멘트연합벤처회사(Cement Joint Venture Companies)는 378만톤의 시멘트를 판매하였다.

현재 베트남의 시멘트 총생산능력은 2,250만톤이다. 베트남은 향후 2010년까지의 시멘트산업 개발 계획 조정과 최근 2020년까지의 비전에 대한 의회 승인으로 2006~2010년 사이에 시멘트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총 33억8천만달러를 필요로 하고 있다.

베트남은 크링카 생산시설이 위치한 중앙, 남부, 북부산악지역에서의 확장 및 신규 계획에 우선하여 초점을 맞추고 있다.

(International Cement Review 8월호)

태국, 시암시멘트社 순익 감소

태국의 최대 시멘트사인 시암시멘트사(Siam Cement PCL)의 2/4분기 순익이 석유화학제품의 수익 악화와 시멘트내수의 계절적 요인으로 1/4분기에 비해 급감했다고 보도되었다.

작년과 비교해서 석유제품과 시멘트 판매가격의 인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암시멘트사의 올 2/4

분기 실적은 전년동기보다 약간 개선된 실적을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

시멘트 부문의 2/4분기 판매 부진은 4월에 연이은 공휴일과 유가인상에 따른 원가 상승으로 건설활동이 위축된데 기인하고 있다.

애널리스트들은 올해 시멘트 판매가 공공부문 사회간접자본 확충계획에 따른 수요강세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2/4분기 국내 내수는 10% 증가(264만톤 ↑) 하였으며 노무라 증권에 따르면 지난해 2/4분기 1,800 THB(태국 바트화)에서 하락한 가격은 올초에 형성된 1,650~1,700THB에서 변동이 없다.

2/4분기 시멘트부문 매출은 전년동기 대비 12% 감소한 대략 93억 THB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International Cement Review 8월호)

중국, 시멘트 생산 회복세

지난해 4월 중국 정부가 과열방지를 위해 철강, 부동산, 시멘트, 알루미늄산업에 부분적으로 투자제한이라는 거시경제 통제정책 실시 이후 중국의 최근 2개월간 시멘트 생산이 급속히 회복하고 있다.

공식통계에 따르면, 1~5월간 전년동기대비 5.8% 증가한 3억 6,120만톤의 시멘트를 생산하였으며 1/4분기에는 1.2%가 증가했다. 특히 5월 한달간 시멘트 생산이 급격히 증가, 전년동월대비 13%나 늘어난 9,346만톤을 기록했으며 이는 올해들어 가장 높은 증가율이다. 5월까지 생산실적을 기업별로 보면, 대기업은 생산능력의 60만톤을 상회하는 11.99%의 실적을 올렸으나 중견기업과 소기업들은 각각 0.71%와 4.1% 증가하는데 그쳤다.

5월의 생산증가는 가격의 상승이 동반된 것인데 5월중 평균가격은 0.57위안 오른 톤당 227.55위안으로 올초에 비해서는 여전히 톤당 8.05위안 낮은 가격대이다.

(International Cement Review 7월호)

필리핀, 리퍼블릭 시멘트社 내수 전망 '안정적'

라파즈 그룹의 일원인 필리핀의 리퍼블릭시멘트社는 2005년이 생산비 증가, 사회간접자본부문 투자에 대한 필리핀 정부의 계속되는 지출억제, 시멘트 매출감소 가능성으로 힘겨운 한해가 될 것으로 예측했다.

리퍼블릭시멘트社 사장 후안 미구엘 몬티놀라는 "시멘트 시장은 평이할 것이고 시멘트 가격은 안정될 것입니다. 다만 전력비용 인상으로 비용이 증가할 여지가 있습니다"라고 밝혔다.

지난달 에너지 공급기관인 국가전력회사는 전력요금을 인상하였다. 전력요금은 정부가 전력생산업체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둬들이기 시작하는 올해 말까지 대략 5%정도 인상될 것이다.

몬티놀라 사장은 필리핀의 전력요금이 아시아에서 가장 높을 것이라고 밝혔는데 필리핀 국내시장의 악화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 대략 50만톤에 달하는 시멘트를 수출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지난해 리퍼블릭시멘트社는 총 400만톤의 시멘트를 판매했다. 몬티놀라 사장은 "리퍼블릭시멘트社는 시험적으로 수출을 시도해왔고 이것이 올해 우리 회사의 특징이 되길 바랍니다"라고 밝혔다.

동사는 올해 시멘트 판매는 평이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판매가격의 인상으로 이익의 실현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존 레이니어 디존 리퍼블릭시멘트社 재무이사는 올해들어 현재까지 시멘트 가격이 지난해 포대(Bag)당 109페소의 평균가격을 상회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몬티놀라 사장은 민간부문이 건물과 다른 시설 건설을 지속하고 있는 동안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정부 지출은 막대한 적자로 인해 지연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의 사회간접자본 부문 예산배정이 7%에 불과한 것을 언급하고 성장률을 유지하고 투자를 유인하기엔 너무 적은 편이라고 보고 있다.

(International Cement Review 6월호) ▲